

컴플라이언스 CEO 메시지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일하는 방식과 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가운데, 네이버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준 또한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준법과 윤리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네이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 가치로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문화 위에서만 사업의 성과도 비로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 책무가 한층 더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AI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역할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AI의 책임 있는 활용, 이용자 보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단계에서 준법과 윤리를 실천하여, 기술과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이용자와 파트너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소상공인·창작자를 비롯한 모든 생태계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관련 법규의 준수를 기본으로, 네이버 규범준수 경영방침과 부패방지 경영방침에 따라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규범준수(ISO 37301)와 부패방지(ISO 37001)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으로도 준법·반부패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는 준법지원인을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책임자로 두고,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결국 명확한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부패와 법·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과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준법과 윤리의 가치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전사 윤리 강령인 Integrity Code를 나침반 삼아, 정직과 투명의 원칙이 제도와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임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준법과 윤리의 실천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실효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한층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본을 지키는 힘이 네이버의 가장 단단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

